

2025년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성탄메시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과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멀고 외딴 곳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입니다.

힘들고, 차갑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2025년 희망의 순례자라는 희년을 지내며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와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가정과 본당 공동체 안에 사랑의 빛으로 가득 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며,
모든 이가 그 사랑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는
복된 성탄 시기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춘천주교 김 주 영 시몬